

2/21/21

설교 제목: 하나님의 섭리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40 장 1- 41 장 57 절

- (1)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 (2)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 (3)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 (4)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지 수일이라
- (5)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 (6)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 (7)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 (8)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 (9)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 (10)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 (11)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 (12)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 (13)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 (14)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 (15)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 (16)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 (17)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 (18)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 (19)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 (20)제 삼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 (21)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 (22)떡 굽는 관원장은 매여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 (23)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 (1)만 이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꾀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 (2)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 (3)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 (4)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 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 (5)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 (6)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 (7)그 세약한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꾀즉 꿈이라
- (8)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 (9)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 (10)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 (11)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꾀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 (12)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 (13)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여 달렸나이다
- (14)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 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 (15)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풀다더라
- (16)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 (17)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 (18)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 (19)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 (20)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의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 (21)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 (22)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 (23)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 (24)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 (25)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 (26)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 (27)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칠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해 흉년이니
- (28)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 (29)온 애굽 땅에 일곱해 큰 풍년이 있겠고
- (30)후에 일곱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 (31)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 (32)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 (33)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 (34)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일곱해 풍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 (35)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 (36)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 (37)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 (38)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 (39)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 (40)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 뿐이니라
- (41)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 (42)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 (43)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앞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 (44)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 (45)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넛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 (46)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삼십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 (47)일곱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 (48)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칠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매
- (49)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 (50)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 (51)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52)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53)애굽 땅에 일곱해 풍년이 그치고

(54)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55)애굽 온 땅이 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56)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새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57)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은 자신이 주인으로 섬기고 있던 시위 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함으로써 그 집 안에 있던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자 했는데 도리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함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그는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들이 연거푸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신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본문은 요셉이 옥에 갇혀서부터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과 총리가 되어 애굽 지역에 닦친 흉년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요셉이 갇혀있던 옥에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잡혀 들어오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왕이 먹는 술과 떡을 관장하는 사람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왕이 먹는 음식은 왕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에게 범죄하여 요셉이 갇혀있는 옥으로 잡혀들어 온 것입니다.

이들이 쿠테타에 가담했다는 설이 있는데 정확한 죄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옥에 들어온지 수 일째 되던 어느 날 요셉은 그들의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이유를 묻자 그들은 각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말해 보라고 했고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신이 꾸은 꿈을 요셉에게 말하였습니다.

(9)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10)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11)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꾸은 꿈은 삼일 안에 복직될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길한 꿈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12)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13)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14)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15)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옥에서 나가 복직이 되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 왕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길함을 보고 자기 꿈도 해석해 달라며 자신이 꾸은 꿈을 말했고 요셉은 그 꿈도 바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16)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17)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18)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19)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술 말은 관원장의 꿈과는 달리 삼일 안에 그가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삼일째 되는 날, 바로 왕의 생일 날에 술 말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이 그대로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20)제 삼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말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21)바로와 술 말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22)떡 굽는 관원장은 매여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요셉의 꿈 해석이 자신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에 맞을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술 말은 관원장은 복직 후 요셉의 부탁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23)술 말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그로부터 만 2년이나 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혀 있는 2년 동안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감옥에서 소망없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홀로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후 2 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바로 왕이 연거푸 두 번씩이나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 (1)만 이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꾀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 (2)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 (3)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 (4)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 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 (5)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 (6)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 (7)그 세약한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꾀즉 꿈이라
- (8)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자 술 말은 관원장은 2 년전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꿈과 떡 굶는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석했던 요셉을 기억해내고 왕에게 요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9)술 말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 (10)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굶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 (11)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꾀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 (12)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 (13)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여 달렸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술 말은 관원장이 2 년전 복직을 하자마자 왕에게 요셉의 억울함에 대해 호소를 하였다면 요셉은 일찍 옥에서 풀려 나왔을 수는 있었겠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왕이 아직 꿈을 꾸지 않아 꿈 해석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애굽에서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30 세 이상이 되어야 했는데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가 딱 30 살이었으니 말입니다.

- (46)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삼십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일하십니다.

바로 왕은 즉시 요셉을 데려다가 자신이 꾸 꿈들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25)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6)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27)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칠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해 흉년이니

(28)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29)온 애굽 땅에 일곱해 큰 풍년이 있겠고

(30)후에 일곱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31)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 왕으로부터 그가 꾸 꿈에 대해 들은 요셉은 왕이 꾸 두 꿈들이 하나라고 말하며 그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애굽 땅에 칠년 동안 큰 풍년이 들고 이어서 칠년 동안 그 큰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큰 흉년이 들어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꿈이라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이에 대한 대비책까지 말해 주었습니다.

(32)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33)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34)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일곱해 풍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35)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36)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요셉의 꿈에 대한 해석과 대비책을 들은 바로 왕은 요셉을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극찬하며 애굽의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37)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8)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 뿐이니라

(41)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42)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3)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앞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요셉은 바로 왕의 주선으로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도 했습니다.

온은 헬리오폴리스라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44)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45)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6)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삼십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총리로 온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동안 칠년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칠년 풍년 기간에 수확한 곡식들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였는데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47)일곱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48)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칠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매

(49)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은 흥년이 들기 전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50)흥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51)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52)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은 첫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로 나의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의미로 므낫세이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는 의미로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과거의 아픔을 씻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요셉은 아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지은 아들들의 이름을 보아서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을 자신의 과거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게 하신 것으로 그리고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요셉 개인의 고난과 형통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이때까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년 대 풍년이 끝나자 칠년 대 흉년이 들었고 애굽과 온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칠년 풍년동안 수확물을 비축해 놓지 않은 나라들은 기근으로 인해 당장 먹을 양식이 떨어졌고 칠년 풍년동안 수확물을 비축해 놓아 양식이 풍족했던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53)애굽 땅에 일곱해 풍년이 그치고

(54)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라

(55)애굽 온 땅이 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56)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새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57)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 장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15: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5:14)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15)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5:16)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것, 그곳에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것,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것,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방비책을 내놓은 것, 애굽 총리가 된 것, 애굽 전역에 칠년 대풍년이 들고 연이어 칠년 대흉년이 든 것, 각국 백성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몰려든 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도면밀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우리 앞에 닥친 고난에 절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당장 닦친 고난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묵묵히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75 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25 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들을 얻기까지 결혼하고 20 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 년을 양을 치며 보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나 꼭 거치는 필수 코스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되고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기간 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과 홀로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주도면밀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